

김경준씨 증인 신문 재요청 공방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측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증인신문을 마치게 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 법원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준씨 증인신문 재요청=이 후보측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미국내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내 변호사가 지난 19일 연방지방법원에 김씨를 한국에 송환하기 전에 관련 증인신문을 마치게 해 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변호사는 앞서 이날 초순에도 증인신문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은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김씨가 모든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송환되기 전에 관련 증인신문을 미국에서 마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국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김씨의 귀국이 자연스레 늦춰질 가능성이 높을 만큼 이 후보측이 김씨의 대선 전 귀국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증인신문을 재요청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범여 '추측 BBK 이중 플레이' 공세=범여권은 22일 "이 후보가 김씨 귀국과 관련,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BBK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종일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가 국내에서는 당당히 척 말하면서 뒤로는 김씨의 귀국을 방해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이 후보는 까도까도 겹칠지 나오는 양파처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구두논쟁을 통해 "이명



대통합민주신당 오종일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송환 저지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귀국 저지' 논란에 추측 '취소' 요청 범여 "추측 BBK 이중플레이" 비난

박 후보와 이 후보측 변호사가 엇갈린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중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이 후보가 BBK 의혹과 관련, 떳떳하지 못함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형락 대변인은 "이 후보측 변호사가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유예를 신청한 것은 이중플레이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BBK 의혹을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추측 "이중 플레이" 주장 어이없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범여권의 잇단 공세와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 측근들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재요청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이번 건이 김씨의 한국 송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측은 다만 전날 밤 현지 변호사측에 증인신문 재요청을 취소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연한 절차이긴 하지만 시점상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 후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측은 김씨의 귀국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檢 "이명박 서면·대리인 조사 부적절"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등 피고수인들을 서면조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종태 2차장 검사는 22일 브리핑에서 "서면조사는 사실여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나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때 택하는 조사 방식이며 이 후보가 피소된 사건 수사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검찰에 나와) 충분하고 상세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 '특정 발언'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한다'식의 대리인 진술만으로 어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조사방식도 이 후보 피소 사건 수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리인 조사는 기업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때 기업주가 실무진 진술만으로 하여 자신이 기소돼도 상관없다고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선거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 출석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됐고 일부는 안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준 한국 송환, 라이스 손에 달려"

한국 대통령 선거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 "라이스 국무장관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며 모든 정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법무 소식통이 21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김씨가 11월 27, 28일쯤 귀국한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 확인된 게 아니다"면서 "국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측 변호인이 김씨의 범인 인도를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바 없으나 미국 국내법상 할 수는 있다"

며 "그러나 미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소심 각하를 신청한데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설사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해도 법원에서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국무부는 이 문제가 한국 대선에 몰고올 파장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김씨가 한국의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일인 내달 25, 26일을 전후해 송환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회창 재출마설' 논란 갈수록 확산

지지자들 "추로는 정권 교체 힘들어" 안상수 "창, 추 돕는데 최선 다할 것"

한나라당, 나아가 보수세력들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애증의 대상이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잇따라 실패한 그에게 동정론과 책임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올해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재출마설이 왜 신빙성 있게 나돌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명박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전 총재의 한 지지자는 "여권에서 시기를 저울질하며 이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히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김경준의 귀국으로 BBK 문제, 도곡동 땅 문

제, 병역문제, 삼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뉴타운관련 비리 의혹, 친인척의 전국적인 땅 투기문제 등 굵직한 핫이슈가 실타래 처럼 얽혀 터질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열렬 지지자들의 주장 보다는 이 전 총재의 모호한 입장이 그의 재출마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지난 19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대선 출마설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라는 말도 빠지면서 그가 재출마 가능성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돌기 시작한 것.

이명박 후보의 한 핵심측근은 "이 전 총재는 또 다시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그렇지 않다면 왜 술한 여론의 압박과 후보측의 직·간접적 요구가 있는데도 이명박 지지선언을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그의 지지 모임인 '총재의 미래'(대표 박석우)가 23일 이 전 총재의 남대문 사무실 앞에서 회원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총재 제17대 대선후보 출마 추대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2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그 분(이 전 총재)은 이명박 후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 총재로 재임할 당시 특별보좌역 등을 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포스트 후진타오' 급부상

경쟁자 리커창에 앞서...후진타오 집권 2기 개막

시진핑(사진) 중국 상하이시 당서기가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리커창 라오닝성 당서기를 제치고 차기 대권 후계자로 유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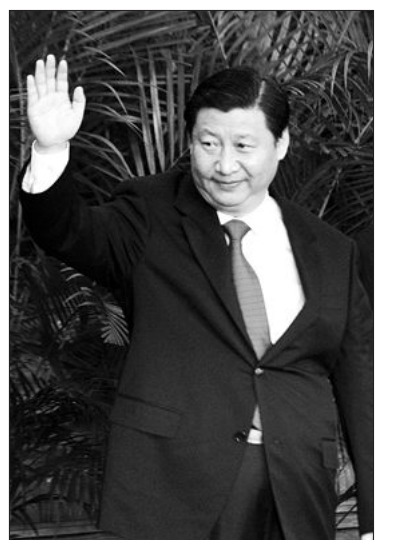
중국 공산당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나갈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새로 선출했다.

후진타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7기 1중전회에서 당총서기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연임에 모두 성공, 오는 2012년까지 앞으로 5년간 후 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개막했다.

또 후 주석 외에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 자칭린 전국정협 주석,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정치국 상무위원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시진핑 당서기와 리커창 당서기는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정계를 은퇴하는 후진타오 주석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앞으로 5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시진핑 당서기가 이번에 권력 서열 6위로 올라서고 리커창 당서기가 권력 서열 7위로 밀려나 시진핑 후 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개막했다.



정체제에서 일단 한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신당,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반대키로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22일 정부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철군 시기를 내년 말로 늦추고 병력을 600여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신당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 오종일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해 국민여론과 미국 내 여론, 대한민국의 국익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당 지도부는 또 파병 연장 문제가 국력을 소진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봉쇄해나가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파병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는 과정들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Advertisement for 'Impyung Diners' Country Club. The main text reads: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Below the text are several small images showing people playing golf and socializing at the club. The background is a scenic view of a golf course with green grass and trees.